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김 영 진**

목 차

- I. 서 론
- II. 체제전환의 이론적 틀
- III.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 전략
- IV. 체제전환기의 경제실적과 석유산업의 역할
- V. 결 론

국문요약

본 논문은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졌는가? 그러한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이 1990년대의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은 중부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비해서는 불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1999년대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집중한 카자흐스탄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체제전환전략은 기대한 효과를 낳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했다. 2000년대에 들어 신규 유전의 발견,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와 국제석유가격의 급등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을 1990년대와는 확연히 구별되게 만들었다. 석유수입은 1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균등한 성장에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엘리트의 부정부패에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주된 우려는 석유 및 주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존, 적절한 제도적 틀의 결여, 중소기업의 결여,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패의 만연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 정부가 제도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I. 서론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소연방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독립을 선언한 공화국이었으며, 소연방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기구를 건설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독립 이후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은 연방탈퇴에 따른 현실적인 충격과 국내 갈등에 시달리면서 국가건설에 나서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줘야 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1월의 가격자유화와 조기 사유화 조치로 대표되는 러시아의 급진적인 개혁을 따랐지만 거시경제의 안정을 처음부터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¹⁾ 1992~94년 동안의 경제정책은 상당 정도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려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실시되었다. 또한 1994년에 잠시 정치적 다원주의가 번성하였지만, 뒤이어 정치적 억압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눈에 띄게 비민주적인 정치구조를 노정하게 되었다.

1999년에 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에 뒤이어 석유의 확인매장량이 증가

1) 카자흐스탄은 1993년 11월까지 루블 존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원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

하고 석유가격이 상승세로 바뀌면서, 카자흐스탄은 호황의 시기에 들어섰다. 2000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석유수출로 인한 대외무역이 급증한 데 힘입어 두 자리 수의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며, 2005년에 석유가격이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호황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은 석유가 저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이나 체제전환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각도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연구를 대체적으로 분류해 보면, 1)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범위에서의 경제성과와 국가 간 협력관계, 그리고 역내 지역통합 등을 분석하는 연구²⁾, 2)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성공적인 경제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³⁾, 3) 석유를 비롯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자원산업의 발전 및 문제점, 그리고 경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⁴⁾, 4)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이중전환의

- 2) 강명구,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 발전전략,”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pp. 314-355.; 고재남, “유라시아의 다자 지역 협력,”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pp. 150-196.; 김영진,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통합: EurAsEC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1권 제3호 (서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년 가을), pp. 185-209.; 김영진, “중앙아시아의 지역통합: 기회, 제약, 전망,” 『슬라브학보』, 제23권 제3호 (서울: 한국슬라브학회, 2008), pp. 299-327.; 한중만, “유라시아 역내 경제 통상 발전,”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pp. 439-482.
- 3) 이재영,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0권 제4호 (서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pp. 137-165.;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6권 제2호 (서울: 한국이슬람학회, 2006), pp. 187-208.
- 4) 김상철,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역사와 문제점-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2004), pp. 229-257.;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정책,” 『중동연구』, 제25권 제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2006), pp. 175-198.; 박상남,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정책,” 『중동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2007), pp. 343-366.; 이경희, “중앙아시아 경제체제 전환에 나타난 상호의존성 -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서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pp. 225-246.; 황윤섭, 김형식, “신흥석유수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서울: 국제지역학회, 2007), pp. 509-525.

관점에서 카자흐스탄 정치경제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⁵⁾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각기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이나 체제전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직면한 다수의 국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기초로 하여,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제전환에 착수하기에 앞서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양호한 초기조건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경제실적은 기대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원인을 검토한다. 또한, 2000년대 이래 카자흐스탄이 달성한 성공적인 경제성과를 석유부문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석유산업의 역할을 평가한다. 이와 통해 본 논문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가졌는가? 그러한 초기조건과 체제전환전략이 1990년대의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주된 요인은 무엇이며, 석유를 비롯한 자원은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 체제전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제도구축과 초기조건인 중요성을 평가할 것이다. 3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에 이르기까지의 초기조건과 실제로 실행된 체제전환 전략을 검토하고, 그것이 경제실적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그 다음 4장에서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을 검토하고,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역할을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토대로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과제를 고찰할 것이다.

5) 윤성석, “카자흐스탄 이종전환의 정치경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5권 (서울: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pp. 231-255.

II. 체제전환의 이론적 틀

1.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그리고 제도의 중요성

일찍이 구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경제개혁의 속도 및 순서를 둘러싸고 이른바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접근방법 간에 논쟁이 전개되었다.⁶⁾ 그러나 하브릴리쉬(Havrylyshyn)은 점진주의, 빅뱅(충격요법), 제도주의 관점이라는 세 가지 상이한 접근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⁷⁾ 발세로비츠(Balcerowicz), 클라우스(Klaus), 삭스와 우(Sachs and Woo)는 체제전환 경제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변화의 급속한 실시를 옹호했다. 아지온과 블랜차드(Aghion and Blanchard), 드와트리폰트와 롤랜드(Dewatripont and Roland)는 점진적인 접근이 혼란 및 산출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머렐(Murrell), 클레이그와 로이저(Clague and Reuser) 등 제도주의자들은 자유화에 있어서의 신속한 변화,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⁸⁾

6) 충격요법과 점진주의 간의 이론적·정책적 차이 및 비교에 대해서는, 김영진, “러시아 국내 경제정책과 발전전략” 홍완석 외,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과주 : 한울아카데미, 2005), pp. 238-249를 참조.

7) O. Havrylyshyn, *Divergent Paths in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 Capitalism for All or Capitalism for the Few?* (New York : IMF and Palgrave Macmillan, 2006), p. 23.

8) 체제전환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L. Balcerowicz,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Comparisons and Lessons,”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27, No. 1 (February, 1994), pp. 47-59. ; V. Klaus, “The Ten Commandments of a Systematic Reform Revisited,” *IFC Fourth Annual Lecture* (Washington : IFC/World Bank, 1995). ; J. Sachs and W. Thye Woo,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Vol. 9, No. 18 (April, 1994), pp. 101-145. ; P. Aghion and O. Blanchard,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 Annual* in S. Ficher and J. Rotemberg, ed., (Cambridge : MIT Press, 1994). ; M. Dewatripont and G. Roland, “Economic Reform and Dynamic Political Constrain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9, No. 4 (October, 1992), pp. 703-30. ; P. Murrell, “How Far Has the Transition Progressed?,”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 (Spring, 1996), pp. 25-44. ; C. Clague and E. Reuser, eds.,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Cambridge : Blackwell Publishers, 1992).

충격요법 모델의 근거에 있는 가정은, 가격자유화는 시장경제의 나머지 요소가 뒤따르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충격요법 모델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가격시스템의 자유화 없이는 진행될 수 없으며, 가격시스템의 자유화는 태환가능 통화가 없이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으며, 태환가능 통화는 경쟁이 없이는 정착될 수 없으며, 경쟁은 구조조정이 없이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⁹⁾ 충격요법론자들은 왜곡된 가격을 유지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지대추구(rent-seeking), 그리고 부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

점진주의의 옹호자들은 경제를 즉각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적·사회적 조직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격요법은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한다.¹¹⁾ 점진주의자들에 따르면, “자유화는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시장제도와 시장과정의 실제적인 진화가 병행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¹²⁾ 다시 말하면, 점진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진화적인 방법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충격요법론자들은 합리성과 편의성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변화를 지지한 반면, 점진주의자들은 경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접근을 선호했다.

이러한 양 접근과 더불어, 충격요법 모델과 점진주의 모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존재한다.¹³⁾ 롤랜드(Roland)는 어떤 사람 혹은 국가에게는 빠른 것이 다른 사람 혹은 국가에게는 느린 것일 수도 있

9) J. Marangos, “Was Shock Therapy Really a Shock?”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7, No. 4 (2003), pp. 943-67.

10) A. Akimov and B. Dollery, “Financial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0, No. 9 (2008), p. 14.

11) K. Hawtrey, “Financial Market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Agenda*, Vol. 3, No. 2 (1996), pp. 195-206.

12) A. Akimov and B. Dollery, *op. cit.*, p. 14.

13) 예를 들면, 다음을 참조 V. Popo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 (2000), pp. 1-57. ; G. Roland and T. Verdier, “Transition and the Output Fall,” *Economics of Transition*, Vol. 7, No. 1 (1999), pp. 1-28.

다고 주장했다.¹⁴⁾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모든 체제전환 국가들은 고유의 체제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라는 이분법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IMF, 세계은행 및 EBRD와 같은 국제기관들은 각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종종 각 지역·국가의 국지적인 환경과 각국의 주민의 요구를 도외시하였다. 어떤 구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은 개혁프로그램일지라도 다른 국가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헝가리와 에스토니아의 체제전환에서 성공적이었던 방법이 카자흐스탄에는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보장하는 만능의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¹⁵⁾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개혁론자들은 어떤 체제전환일지라도 거시경제의 안정화, 사유화, 가격자유화라는 세 개의 기둥에 근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 개의 기둥은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기존의 재산권 제도는 사유화 개혁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정부는 부패하여 경쟁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사회·정치적 제도는 투자에 대한 위협을 낳았으며, 법의 지배와 투명성은 거의 확립되지 않았다.¹⁶⁾ 따라서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각종 제도를 건설하고 이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진 것이다.¹⁷⁾

14) G. Rol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pp. 29-50.

15) D. Rodrik, *One Economics Many Recip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 166-167을 참조.

16) *Ibid.*, p. 153.

17) 세계은행은 제도를 "사회에서의 개인과 조직의 행동을 형성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룰 및 그 시행 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은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체"¹⁾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도와 구별된다. 여기서 제시하는 공식적 제도의 예는 법률과 규정 및 계약이며, 비공식적 제도에는 신뢰, 윤리, 그리고 정치 규범 등이 포함된다. 조직은 정치조직(의회, 정당, 정부기관, 사법부), 경제조직(민간기업, 노동조합, 기업인협회), 그리고 사회조직(NGOs, 학교, 친목회) 등을 포함한다. Shahid Javed Burki and Guillermo Perry, eds,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 Institutions Matter* (Washington, DC : World Bank, 1998), p. 11.

26개국에 이르는 체제전환경제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한 실증분석에서는¹⁸⁾,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있어서는 거시경제 안정화, 가격자유화와 함께 초기조건과 제도구축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국에서는 제도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유기업을 사유화하고, 기존의 경영진·종업원으로 이루어진 내부자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필요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보였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내부자 통제의 문제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킨다.

2. 체제전환과 초기조건

체제전환에 관한 많은 연구는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성장에 초기조건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독일의 뒤셀도르프를 기준으로) 더욱 동쪽에 위치한 국가나 사회주의 하에서 더욱 오랫동안 지낸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더욱 나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¹⁹⁾

다음 <표 1>은 체제전환 경제에 있어서 초기조건 of 다양한 내용과 그 지수를 나타낸다. 체제전환에 착수한 시점에 CIS 국가의 1인당 소득수준은 발트해 연안국과 중부·동유럽 국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다. CIS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의 순이었으며, 카자흐스탄의 경우, CIS 국가 전체에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았다.

또한 이 표는 EBRD에 의해 계산된 초기조건 지수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큰 초기조건 지수를 가진 국가는 체제전환 시점에 더욱 유리한

18) Stanley Fischer, "Ten Years of Transition :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IMF Staff Papers* (Special Issue), Vol. 48 (May, 2002).

19)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April 14, 2004)를 참조.

조건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 지수는 발전수준, 코메콘에 대한 무역의존도, 거시경제의 불안정(억압된 인플레이션, 암시장 프리미엄), EU와의 거리, 천연자원 부존량, 시장 경험 및 국가 역량에 관한 요소분석으로부터 산출되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EBRD의 초기조건 지수에 의해 측정된 경제의 왜곡수준은 중부·동유럽보다 CIS 국가에서 훨씬 높았다.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주변 국가에 비해 다소 양호한 초기조건 지수를 보였다.

<표 1> 체제전환 경제의 비교 : 역사와 초기조건

	체제전환 착수시점 (T기)	1인당 소득(PPP), 1989년	1인당 GDP (PPP), T기	공산주의 시작	초기조건 지수 ¹⁾	민족분열 ²⁾	천연자원
발틱 국가	1992	7,973	6,119	1940	-0.2	0.50	빈약
중부·동유럽	1990/91	5,760	7,242	1947	2.6	0.26	빈약
CIS-7개국	1992	5,831	4,986	1922	-1.6	0.38	
러시아	1992	7,720	9,077	1917	-1.1	0.31	풍부
우크라이나	1992	5,680	5,998	1918	-1.4	0.42	중간
벨로루시	1992	7,010	6,660	1918	-1.1	0.37	빈약
몰도바	1992	4,670	3,311	1940	-1.1	0.55	빈약
그루지야	1992	5,590	4,650	1921	-2.2	0.55	중간
아르메니아	1992	5,530	2,160	1920	-1.1	0.12	빈약
아제르바이잔	1992	4,620	3,046	1921	-3.2	0.31	풍부
CIS-5개국	1992	3,658	3,562	1921	-2.8	0.57	
카자흐스탄	1992	5,130	5,615	1921	-2.5	0.68	풍부
우즈베키스탄	1992	2,740	2,195	1921	-2.8	0.48	중간
키르기스스탄	1992	3,180	2,978	1921	-2.3	0.66	빈약
타지키스탄	1992	3,010	1,866	1921	-2.9	0.58	빈약
투르크메니스탄	1992	4,230	5,154	1921	-3.4	0.46	풍부

자료 : Stanley Fischer and Ratna Sahay, "Transition Economies :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April 14, 2004), p. 14의 내용을 인용을 제작성.

주 : 1) 지수가 더욱 높은 수치를 가질수록 더욱 유리한 초기조건을 의미한다.

2) 범위는 0과 1의 사이에 위치하며, 0은 민족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표 1>은 초기조건과 관련된 그밖에 다른 지표를 보여준다. 민족 분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CIS 국가들은 중부·동유럽 국가들보다 민족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으나, CIS 국가들 내에서도 커다란 다양성이 존재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의 민족분열 정도가 더욱 높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민족분열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CIS 국가들 중 일부는 여타 국가에 비해 풍부한 천연자원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CIS 7개국 중에서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초기조건의 역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고찰되었다.²⁰⁾ 전반적인 결론은 초기조건의 영향은 체제전환의 출발시점에는 강력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초기조건의 역할 감소는 각종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초기조건 지수에 관한 계수는 거의 항상 작은 값을 보인다. 초기조건 지수가 ‘체제전환 기간’ 더미변수와 교호작용을 할 경우, 그 계수는 마찬가지로 작은 값을 갖긴 하지만 마이너스 값으로 바뀐다. 즉, 체제전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초기조건의 중요성은 더욱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 초기조건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M. De Melo, C. Denizer, A. Gelb and S. Tenev, “Circumstances and Choice :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866 (December, 1998); A. Berg, E. Borensztein, R. Sahay and J. Zettelmeyer, “The Evolution of Output in Transition Economies : Explaining the Differences,” *IMF Working Paper*, WP/99/73 (May, 1999); Oleh Havrylyshyn and Ron van Rooden, “Institutions Matter in Transition, But So Do Polic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5, No. 1 (March, 2003), pp. 2-24.

Ⅲ.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과 체제전환 전략

1. 경제구조와 명령경제의 유산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농업경제 국가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지역으로 공업기업들이 이전했으며 이는 나중에 공업부문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이후,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기업이 설립됨으로써 공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카자흐스탄에서 기축방목은 전통적으로 매우 잘 발달되어 있었던 반면, 대규모 농작물 재배는 1950년에 약 350만 헥타르의 처너지와 오랜 휴경지가 개간되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 이후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방에서 주요 농작물 생산지로 등장했다. 1991년 농업은 공화국 내 국민소득의 1/3 이상을 생산했다.²¹⁾

카자흐스탄의 산업구조는 막대한 천연자원을 중요한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28억 톤의 석유 및 콘덴세이트 확인매장량(플러스 200억 톤의 추정매장량)과 2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그리고 6조 입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개발 매장량)를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막대한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인산 광물(phosphate), 그리고 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천연자원은 카자흐스탄에서 주요 중공업 분야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공업화의 과정을 진척시켰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초, 카자흐스탄은 농공업 국가로 발전했으며 비교적 다각화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²²⁾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원료생산을 크게 중시하게 되어 채굴분야가 전체 공업산출의 30%를 차지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발전이 훨씬 뒤떨어졌다. 더욱이 공업부문은 진보적인 R&D에 기초한 재화를 거의

21)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주로 참조. A. Esentugelov, A. "Kazakhstan : Problems and Prospects of Reform and Development," in B. Rumer, *Central Asia in Transition - Dilemma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M.E. Sharpe, 1996), pp. 198-226.

22) *Ibid.*, pp. 198-199.

생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소비에트 지배 하에서 경시된 생산 및 사회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반도 취약했다. 서비스부문도 저발전되어 있었는데, 1991년 서비스부문은 국민소득의 8%를 생산했을 뿐이었다.²³⁾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방에서 주요 농업 생산국이었는데, 2억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역은 곡물재배와 가축사육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공업의 집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서 농업은 계속하여 주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1991년, 농업은 국민소득의 34%를 차지했는데, 이는 공업이 차지한 37%와 비교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원료생산에 강하게 특화된 농공업 경제를 가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중공업은 주로 원료 및 중간가공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에 따라 농산물도 대체로 1차 원료로 구성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기업은 일반적으로 대규모이고 고도로 특화되어 있으며, 다른 기업과 복잡한 연결을 맺고 있다. 모든 기업은 기본적으로 각 시장에서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입지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국과의 운송연결이 취약하고 세계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이 국가는 또한 제한된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데, 즉 상대적으로 인구규모가 작고(1,700만 명) 1인당 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소련방은 카자흐스탄의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광범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소련방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탈적인 방식으로 행해졌다. 전연방 차원의 중앙부처와 행정조직은 최대한의 원료추출이라는 생산목표만을 중시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의 기본적인 수요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과 환경보호를 도외시켰다. 그 결과, 매장량이 풍부한 다수의 광상(鑛床)과 유정(油井)이 급속도로 고갈되어 이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에트 체제는 카자흐스탄에 초기 공정작업만을 할당하고, 그 다음 단계의 원료는 공화국 외부의 최종 목적지로 운송하였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 경제의 효율성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23) 대다수 선진산업국가의 경우 국민소득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60% 정도인 것과 비교된다.

머물렀으며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뿌리 깊게 남겨졌다.

한편, 소연방의 분열은 고도로 통합되었던 전 연방 소비에트 시장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모든 신생독립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소연방 구성공화국들은 생산의 급격한 축소를 겪었는데, 소연방의 분열은 카자흐스탄에서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경기침체는 카자흐스탄이 원료생산에 매우 특화되어 있었고, 따라서 다른 재화(무엇보다 최종생산물)를 여타 소비에트 공화국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직접 기인했다. 개혁의 개시 이후, 다른 공화국에서 공급된 재화의 양은 50~80%가 급감했으며, 그 요인만으로도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생산 하락폭의 30~35%를 차지했다.²⁴⁾

2.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

카자흐스탄이 중앙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전략은 사실상 매우 단순했으며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 사유화라는 두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었다. 이 두 가지 정책패키지는 신속하게 실시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이른바 '충격요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가격자유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데 대한 이유는 명확했다. 시장경제의 각 경제주체는 가격신호, 즉 재화와 서비스, 원료, 노동, 자본, 외환 등의 상대가격 변화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계획체제 하에서의 가격은 행정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빅뱅' 방식으로 일거에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효율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일정한 가정 하에서만 타당하다. 첫째로는 거시경제의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투자자와 생산자 및 소비

24) A. Esentugelov, *op. cit.*, p. 200.

자들이 상대가격과 이윤인센티브의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가 곤란할 것이며,²⁵⁾ 따라서 가격체계는 자원배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나 공급의 반응이 커야 하며,²⁶⁾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격은 산출물 구성과 소비패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로는 고용의 수준과 생산능력의 이용수준이 높아야 한다. 상대가격 변화에 대한 산출의 반응은 투자율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투자는 다시 경제활동의 템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면 투자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투자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산출구성에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불행히도, 카자흐스탄에는 가격자유화의 성공에 필요한 이들 조건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독립 이전에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으로부터 대단히 많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는 정부의 총지출을 위한 재원 중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였다. 1980년대 말, 이 보조금은 GDP의 9% 이상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독립 이후 이 보조금은 갑자기 중단되었으며, 따라서 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직면했다. 이 상황에서 카자흐 정부는 조세수입의 증가와 지출의 삭감을 통해 거시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보다는, 화폐증발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1992년과 1996년 사이에 정부지출은 GDP의 31.9%에서 17.2%로 하락한 반면, 조세수입은 GDP의 21.5%에서 10.5%로 하락하였다.²⁷⁾

이러한 문제는 가격자유화에 대한 낮은 공급탄력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시장은 계획체제를 즉각 대체할 수 없었으며, 소연방 및 그 외 코메콘 국가와의 교역메커니즘의 붕괴는 카자흐스탄에게 수출시장의 상실을 의미했다. 다른 시장으로 공급선을 급히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산출이 하락하여 카자흐 경제는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다. 특히 국유

25) 특히 각 시장참가자들이 시장경제 및 시장과정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26)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의 변화에 대해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27) United Nations,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96-1997* (Geneva and New York : United Nations, 1997).

공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계획체제 하에서 각 국유기업은 공급자 및 구매자와 밀접한 결합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중 다수는 소련방의 다른 공화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불황은 다시 투자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가격신호에 따라 공급을 증가시키는 경제의 능력을 더욱 축소시켰다.

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전략이 기초한 두 번째 기동인 사유화도 성공적이지 못했다.²⁸⁾ 사실상,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유화 움직임의 대부분은 전체주의 국가 및 그 중앙집권적 계획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모로까지 정부통제부문을 축소하려는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²⁹⁾ 1992년 초 카자흐스탄의 사유화는 소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97년 5월 현재, 18,5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3,000개의 대규모 및 중규모 기업이 포함되었다. 국가기업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사적 수증으로 이전되었는데, 바우처 방식, 경매 방식, 직접매각방식(예를 들면, 외국기업이나 해당 기업의 관리자와 노동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리고 주식매각방식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된 사유화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는데, 대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으며 성공적이지도 않았던 것이다.³⁰⁾

사유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자체적인 기준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전략적인 실수나 잘못된 우선순위의 사례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가기업의 문제는 단지 소유권 이전에 의해 치유될 수 없었다. 국가기업들은 관리시스템을 개혁하고 공장과 설비

28)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널리 믿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옳바르지 않다. 시장경제는 개인기업,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 국유기업 등 많은 소유형태와 양립할 수 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체제전환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도록 하는 경제이론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동기”가 사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 근거였다고 한다. UNDP, *Kazakhsta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Almaty : UNDP, 1996).

29) A. Leijonhufvud and C. Ruhl, “Russian dilemma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7, No. 2 (1997), pp. 344-348.

30) UNDP (1996), *op. cit.*

를 현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었다. 국가기업이 민간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면해야 했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개혁하기까지는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특히 소규모 기업의)이 정부수입의 상실과 대규모 예산적자 및 더욱 빠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세개혁이 사유화 이전에 진행되어야 했다.

둘째, 기존 기업을 사유화하기보다는 체제이행기 동안에는 신규 사적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창설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본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집약적인 고용능력을 갖고 있으며, 시장신호에 탄력적이고 긴밀하게 반응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경제에 역동성을 부가하며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000년에 들어 사유화의 범위는 줄어들었지만, 그 방법은 더욱 조직화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통제되었다.³¹⁾ 이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즉, 국제석유가격이 기록을 계속 갱신할 정도로 상승함으로써 국가자산의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IV. 체제전환기의 경제실적과 석유산업의 역할

1. 1990년대의 경제실적 : 경기하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전반기에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는데, 1991년과 1995년 사이에 GDP가 2/5 이상이나 하락했다. 이러한 경기하락은 1996년과 1997년에 멈추었으나, 1998년에 다시 GDP의 추가적인 하락을 겪었다. 그리고 1999년에 보인 미약한 플러스 성장의 실적을 시발로 하여 마침

31) R. Pomfret, *The Central Asian Economies Since Independenc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 40-60.

내 10년에 걸친 초라한 거시경제 실적을 마감했다(<표 2>를 참조).³²⁾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초기의 높은 소득과 인적자본,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외부적 충격과 하이퍼인플레이션, 그리고 숙련 기술자의 이민은 막대한 산출량의 축소를 가져왔다. 1990-1995년 사이에 국내생산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되었으며 그 하락률은 이 시기의 첫 5년 동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1992년 1월에 가격자유화를 신속하게 실시했지만,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1997년에 들어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되긴 했지만, 1992-93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하락시키는 데서 지체한 것도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장애를 낳았다.³³⁾

<표 2> 체제전환 이후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주요 경제실적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DP성장률	-5.3	-9.2	-12.6	-8.2	0.5	1.7	-1.9	2.7
인플레이션(CPI)	1,381.0	1,662.3	1,892.0	176.3	39.1	17.4	7.1	8.3
실업(연말)	0.4	0.5	8.0	10.1	7.6	6.5	13.1	13.5

자료 : EBRD, Economic statistics and forecasts.

<표 2>에서 보듯이, 가격수준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체제전환을 시작한 1992년 이래 3년간 네 자리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최고조에 이른 1994년에 연간 인플레이율은 1,892%였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96년의 인플레이율을 두 자리 수로 하락시키고 마침내 폭발적인

32) 1999년의 실질GDP 수준을 1989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CIS 국가 중 몰도바,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1990년대 동안 절반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G. Ofer, and R. Pomfret,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since 1991* (Cheltenham, U.K. : Edward Elgar, 1991), p. 12.

33) R. Pomfret, *op. cit.*, pp. 41-42.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가격자유화 시기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 가능성을 파괴했다. 경제의 ‘경착륙’이 불가피해진 것이다.³⁴⁾

소비에트 공화국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소연방 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붕괴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소연방 각지(대개는 러시아)의 공급업자, 채련업자, 그리고 최종이용자를 포함하는 생산연쇄에 의존하는 단일기업 도시와 관련되었다. 서부 카자흐스탄의 미발달한 석유산업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했는데, 카자흐스탄 북동부에 있는 파블로다르(Pavlodar)의 주요 정유공장과 남부에 있는 쉴켄트(Shymkent)는 시베리아 석유유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유화를 통한 소유권의 확정은 더욱 장기적인 면에서는 생산의 효율을 개선시킬 수도 있지만, 1995-96년의 대규모 기업의 무질서한 사유화는 혼란을 가중시켰다.³⁵⁾

<표 3> 카자흐스탄의 인구규모와 1인당 GDP (1992-1999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인구(백만 명)	16.9	16.9	16.2	16.0	15.7	15.5	15.2	14.9
1인당GDP(달러)	349.6	331.0	735.7	1,042.8	1,341.9	1,431.8	1,457.5	1,132.3

자료 : EBRD, Economic statistics and forecasts
(<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동안 높은 이민을 경험했는데, 독립 시에 1,700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 후 1,500만 명 이하로 하락했다(<표 3>을 참조). 1989년 소비에트의 마지막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공화국의 인구는 약

34) K. Griffin, *op. cit.*, p. 141.

35) 법규와 공정성을 무시한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식의 사유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법의 지배가 출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다음을 참조. K. Hoff, and J. Stiglitz, “After the big bang? Obstacles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of law in post-communist socie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 (2004), pp. 753-763

2/5의 카자흐민족, 2/5의 러시아민족, 1/5의 여타 소수민족집단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초 카자흐공화국에서 가장 큰 인구집단이었던 러시아인들은 수도인 알마티와 러시아연방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및 동부지역에 집중해 있었다. 다른 집단 가운데는 스탈린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진 많은 독일계 소수민족과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대다수 게르만인들은 독일시민법을 이용하여 1990년대 초에 독일로 이민을 떠났다. 카자흐스탄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은 고학력자와 숙련 기술자를 가진 게르만인과 러시아인의 이민은 독립 이후 초기의 수년 동안 많은 두뇌가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³⁶⁾ 1998년 러시아의 위기와 함께 인구이동의 속도는 떨어졌지만, 2000년에조차 여전히 연간 순수출 이민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 2000년 이후의 석유 붐과 함께 이민자 수는 실제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표 4>를 참조).³⁷⁾

체제전환국 간의 산출량 비교는 대개 1인당 GDP보다는 총산출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민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비교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상대적인 실적은 실제보다 더욱 나빠 보일 수 있다. 여타 복지 지표는 카자흐스탄이 GDP 추정치가 암시하는 만큼 빈약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아니라는 인상을 주는데, 추정치와 현실 간의 이러한 갭은 인접한 CIS 국가들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크기나 상대적인 크기가 어떠하든 1990년대 카자흐스탄의 산출 실적은 잠재적인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다.³⁸⁾

36) 1990년대 동안 약 백만 명의 러시아인과 70만 명의 게르만 인들이 카자흐스탄을 떠났다. 더욱 작은 숫자의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 타타르인들이 CIS의 다른 부분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떠났다. 이 해외이민의 일부는 구 소연방과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온 이민에 의해 상쇄되었다. UNDP는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사람의 숫자를 26만 명으로 추정했다. 다음을 참조. C. Becker et al., "The Migration Response to Economic Shock : Lessons from Kazakhst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3 (2005), pp. 107-32.

37) R. Pomfret, *op. cit.*, p. 43.

38) 산출의 폭락은 당연히 소득의 폭락을 수반했다. 카자흐스탄의 전체 인구는 빈곤상태에 빠졌다. 동시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증가했는데, 지니계수는 1990년에 0.297에서 1993년에는 0.327로 상승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 Griffin, *op. cit.*, p. 142를 참조.

1998년의 경기후퇴는 러시아의 위기에 뒤따른 것이었다.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외생적인 충격이었지만, 카자흐스탄이 쉽게 감염된 것은 그러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견실한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카자흐 정부는 큰 폭의 평가절하로 대응했는데, 그것은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1999년과 2000년에 경제 흐름을 뒤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다.

2. 2000년대의 경제호황과 석유부문의 역할

카자흐스탄은 1999년에 경제흐름을 역전시키고 2000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국제석유가격의 상승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 5월 정부는 경제의 체질강화와 금융적 강세를 보이는 신호로 IMF의 부채를 조기에 상환했다.

2000~2007년에 걸쳐 연평균 10%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표 4>를 참조).

<표 4>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00~2007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DP성장률(%)	9.8	13.5	9.8	9.3	9.6	9.7	10.7	8.5
소비자물가(%)	13.2	8.4	5.9	6.4	6.9	7.6	8.6	10.8
실업률(%)	12.8	10.4	9.3	8.8	8.4	8.1	7.8	7.3
수출(백만 달러)	9,288.1	8,927.8	10,026.9	13,232.6	20,603.1	28,300.6	38,762.0	48,349.0
수입(백만 달러)	7,119.7	7,944.4	8,039.8	9,553.6	13,817.7	17,978.8	24,120.0	33,208.0
무역수지(백만 달러)	2,168.4	983.4	1,987.1	3,679.0	6,785.4	10,321.8	14,642.0	15,141.0
FDI(백만 달러)	1,278.2	2,860.6	2,163.8	2,213.4	5,436.0	2,123.0	6,630.0	7,100.0
환율(대달러, 연말)	144.5	150.2	155.6	144.2	130.0	134.0	127.0	120.7
인구(백만 명)	14.9	14.9	14.9	15.0	15.1	15.1	15.1	15.1
1인당GDP(달러)	1,230.5	1,491.7	1,657.2	2,062.3	2,862.5	3,783.2	5,362.9	6,867.3

자료 : EBRD, Economic statistics and forecasts
(<http://www.ebrd.com/country/sector/econo/stats/index.htm>).

체제전환 초기인 1994년 -12.6%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보인 카자흐스탄 경제는 2000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1년 13.5%, 2006년 10.7%의 고 성장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동력은 국제고유가로 인한 석유수출의 호조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투자 및 소비의 건실한 증가이다. 카자흐스탄 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약 90억 배럴(세계 17위), 추정매장량은 966억 배럴로 파악되고 있으며, 총수출에서 석유·가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생산은 2000~07년 기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과 2007년의 총고정자본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24.0%와 18.6% 증가하였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석유 및 가스산업에, 정부의 공공투자는 사회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다.

석유산업은 카자흐스탄 최대 산업으로, 2005년에 1일 124만 3,000배럴에 총 6,190만 톤의 석유 및 가스 콘덴세이트를 생산하였다. 2000~05년까지 카자흐스탄 석유생산은 연평균 10~15% 증가해왔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석유생산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로 2015년까지 석유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유전으로는 카스피해 연안을 중심으로 텡기즈(Tengiz), 카라차가나크(Karachaganak), 카샤간(Kashagan), 쿠르만가지(Kurmangazy) 등이 있다.³⁹⁾

1999년 이후의 석유 붐은 석유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경우에도 카자흐스탄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주된 우려의 하나는 제도적인 환경이다. 1994년에 정치적 다원주의가 잠시 번성하였으나, 1995~6년에는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전개되면서 1990년대 이래 카자흐스탄의 정치사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사유화 과정은 부패를 잉태하고 거버넌스 기준을 악화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우려는 풍부한 석유자원의 역할이다. 석유는 2000년 이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확인 매장량은 적어도 21세기 중반까지 상당 규모의 석유생산을 보장하고 있지만, 석유부문은 공적자원을 민간에

39) 카자흐스탄의 석유산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철원, 신현준, “제4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전망,” 이재영·박상남 편저,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양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규모의 가장 부패한 부분이었다.⁴⁰⁾

풍부한 천연자원이 축복이나 저주나 하는 오랜 주제에 관한 논쟁은 삭스와 와너(Sachs & Warner, 1995)에 의해 재차 신중하게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국별 횡단면자료의 회귀분석을 통해 풍부한 자원과 경제성장 간의 부(負)의 관계를 밝혀내었다.⁴¹⁾ 삭스와 와너 이래 많은 연구가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였는데, 석유 및 광물과 경제성장 간의 부(負)의 관계가 농업과의 관계보다 더욱 강하며, 그 관계는 제도 변수나 민주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⁴²⁾ 풍부한 자원이 장기적으로 낮은 성장을 가져오는 전달메커니즘은 세 가지 전달경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상대가격 체계를 통하여(네덜란드 병의 효과), 자원 수입(收入)의 변동성을 통하여, 그리고 지대추구와 제도의 왜곡을 통하여 전달된다고 한다.

네덜란드 병의 효과는 오랫동안 국제무역이론과 관련된 문헌에서 논의되었다. 자원집약적인 수출의 증가는 통화의 절상을 가져오며 다른 교역재를 생산하려는 인센티브를 하락시킨다. 만약 후자(다른 교역재)가 정(正)의 외부성을 갖고 있거나 자원 수입이 고갈되었을 때 하락된 인센티브를 되돌리는 데 비용이 든다면,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연결은 석유 붐 이전인 1990년대 동안 카자흐스탄 경제의 비 석유부문이 쇠퇴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카자흐스탄에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⁴³⁾ 상대가격의 효과는 석유가 없었다면 등장하였

40) R. Pomfret, *op. cit.*, p. 44.

41) J. Sachs and A. Warner,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 517*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1995).

42) 이에 관한 선행연구와 회귀분석은, 다음을 참조. Xavier Sala-i-Martin and Arvind Subramanian, "Addressing the Natural Resource Curse : An Illustration from Nigerian," *IMF Working Paper*, WP/03/139 (July, 2003) ; Bineswaree Bolaky and Caroline Freund, "Trade, Regulations, an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55 (March 2004).

43) Y. Kalyuzhnova, J. Pemberton and B. Mukhamediyev,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in Kazakhstan," in G. Ofer and R. Pomfret, ed.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since 1991* (Cheltenham, UK : Edward Elgar, 2004), pp. 257-259.

을 잠재적인 신규부문을 억제할 수 있다.

자원수출은 일반적으로 비자원 재화나 서비스보다 세계시장에서 더욱 가변적인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다. 석유판매에 따른 유효자금이 갑작스럽게 증가한다고 해서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양호한 프로젝트가 그에 맞추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석유로 벌어들인 소득이 한계수익이 낮은 국내 프로젝트에 투자되거나 사치성 소비에 사용되는 패턴이 고착된다면 가격 변동성이 큰 자원수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황에 뒤따른 불황이 스스로 보호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을 축소시킬 경우, 자원수출의 변동성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경제성장의 하락을 통해) 빈곤을 증가시킬 수 있다.

풍부한 자원이 지대추구 및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의 성격과 기존의 제도에 의존한다. 경제사학자들은 자원부존의 성격과 제도 발전 간의 결합 관계를 추적했다.⁴⁴⁾ 기술적으로 가족단위의 생산에 적합한 농업은 민주주의적인 제도적 특질과 결합되어 상대적으로 균등한 경제발전을 꾀한 반면, 광물 등의 자원산업이나 플랜테이션 농업은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이지 못한 제도발전과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즉, 풍부한 자원은 노르웨이, 앨버타, 알래스카와 같이 석유 지대를 적절하게 관리한 민주적인 국가나 지방에서는 축복이었지만, 독재적이고 부패한 정치구조와 제도를 가진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인구를 빈곤에 빠지게 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증거를 통해 볼 때, 석유가 저주나 축복이나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도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독재적인 정부를 가진 카자흐스탄으로서는 결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없다. 1990년대의 대규모 지대추구와 정치엘리트의 행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결여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정치발전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는 시민사회가 등장하려는 조짐이 생겨나고 있는데, 따라서 멕시코 유형으

44) Tornell & Lane (1999)는 자원의 저주의 원천으로서 지대를 둘러싼 경쟁과 지대의 낭비를 분석하고 있다. A. Tornell and P. Lane, "The voracity effec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1 (March, 1999), pp. 22-46.

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⁴⁵⁾

그러나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는 비 석유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⁴⁶⁾ 석유 호황의 시기 동안 농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높은 석유가격이나 환율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나타내었다. 사실상 카자흐의 텡케는 1998~1999년의 위기로 인한 불황을 겪고 나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질치로 보면 절하되었다.⁴⁷⁾ 가격의 변동성을 통한 석유의 저주 전달메커니즘 또한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은 경기순환의 호황 국면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무렵에 시작된 경기침체의 국면을 거치고 난 이후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카자흐 정부는 석유기금의 설치를 통해 적절한 소득격차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경기순환의 불황국면 동안 석유기금 및 그 관리의 독립성이 유지되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초기조건은 중부유럽이나 발트해 연안국에 비해서는 불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욱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독립 시에 카자흐스탄은 우수

45) 멕시코의 경우, 1970년대에는 석유 붐에서 얻는 수입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했지만, 1982년의 외채위기 이후에는 석유지대를 사회적으로 더욱 유익하게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46) Kalyuzhnova et al. (2004)은 카자흐스탄에서 네덜란드 병의 증거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황윤섭·김형석(2007)은 실증분석을 통해 카자흐스탄에 네덜란드 병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예비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낮은 유의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47) IMF, "Republic of Kazakhstan : 200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03/210 (July, 2003), p. 11.

한 인적자원과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하여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간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로서 경제 잠재력이란 면에서 유망한 미래를 갖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교육수준이 높았고 건강상태도 양호했으며 상대적으로 긴 평균수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낮았으며, 광범위한 갖추어져 있었던 사회서비스는 대다수 인구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었다. 물론, 1970년대 이래의 경제성장률 하락, 아랄해의 급속한 건조, 카스피해 수면의 상승,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오염과 대규모 산업공해를 비롯하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육지로 둘러싸인 중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 카자흐스탄의 발전 전망은 더욱 유리했다.

그런데, 왜 2000년대 이전까지 카자흐스탄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는가? 가격자유화와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집중한 체제전환전략은 기대한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은 소연방으로부터 금융 보조금의 상실, 코메콘 무역제도의 붕괴, 그리고 숙련된 관리요원과 기술자의 대규모 국외 유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규모 외부충격에 대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으며, 산출과 소득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개혁정책은 소홀히 되었다. 여기에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성공과는 동떨어진 개발전략, 낮은 국제석유가격, 기업경영 및 관리상의 실책과 부패의 만연, 그리고 1998년 러시아의 금융위기 등이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의 경제침체를 가져온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은 1990년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규 유전의 발견, 기존의 노선을 대체하는 파이프라인 루트와 국제석유가격의 급등은 석유 붐을 더욱 가열시켰다. 석유 붐의 이익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지만, 1990년대의 쇠퇴 기초의 경제상황을 역전시켰으며 경제적 번영이란 면에서 카자흐스탄을 역내 인접국가로부터 멀리 떼어놓았다. 2000년대의 석유 붐은 1990년대의 실책과 상실한 기회를 극복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제공했다.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인접국보다 높은 1인당 소득을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의 쇠퇴를 뒤로 하고

2000년대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역내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석유 수입은 10년 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균등한 성장에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엘리트의 부정축재에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7년 중순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미 2007년 8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2007년의 최종적인 GDP 성장률은 8.5%를 기록했다. 전 세계에 걸친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2008년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2008년의 경우 GDP는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자흐스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높은 국제석유가라는 유리한 대외적 여건이 사라진 조건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가 외부적 충격에 대단히 취약했기 때문이며, 그러한 취약한 경제구조는 1990년대에 도입되어 실시된 충격요법 모델에 기초한 체제전환 전략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대한 주된 우려는 석유 및 주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의존, 적절한 제도적 틀의 결여, 중소기업의 결여, 사회부문에 대한 투자의 부족과 부패의 만연 등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 정부가 제도건설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다. 부패는 카자흐스탄과 여타 개발도상국 내에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나 정부조달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석유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엘리트들의 치부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구. “중아시아 5개국의 국가 발전 전략.”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6.
- 고재남. “유라시아의 다자 지역 협력.”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6.
- 김상철. “중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역사와 문제점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제20권, 제1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 2004.
- 김영진. “러시아 국내 경제정책과 발전전략.” 홍완석 외.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5.
- _____.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의 지역통합 : EurAsEC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1권, 제3호. 서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년 가을.
- _____. “중아시아의 지역통합 : 기회, 제약, 전망.” 『슬라브학보』. 제23권, 제3호.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08.
-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6권 제2호. 서울 : 한국이슬람학회, 2006.
- _____.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정책.” 『중동연구』. 제25권, 제1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2006.
- 박상남. “카자흐스탄의 석유-가스 산업정책.” 『중동연구』. 제26권, 제2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2007.
- 윤성석. “카자흐스탄 이중전환의 정치경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5권. 서울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0.
- 이경희. “중아시아 경제체제 전환에 나타난 상호의존성 -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2호. 서울 :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 이재영. “중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중소연

- 구』. 제30권, 제4호. 서울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7.
- 이재영 · 박상남 편저. 『중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한중만. “유라시아 역내 경제 통상 발전.”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06.
- 황윤섭, 김형식. “신흥석유수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 -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서울 : 국제지역학회, 2007.
- Aghion, P. and Blanchard, O. “On the Speed of Transition in Central Europe.” in Ficher S. and Rotemberg, J. e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 Annual*. Cambridge : MIT Press, 1994.
- Akimov, A. and Dollery, B. “Financial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Problems of Economic Transition*. Vol. 50, No. 9 (2008).
- Balcerowicz, L.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 Comparisons and Lessons.” *Second Annual IFC Lecture*. Washington : IFC/World Bank, 1993.
- Becker C., Musabek, E., Seitenva, A. G. and Urzhumova, D. “The migration response to economic shock : lessons from Kazakhsta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3 (2005), pp. 107-32.
- Berg, A., Borensztein, E., Sahay, R. and Zettelmeyer, J. “The Evolution of Output in Transition Economies : Explaining the Differences.” *IMF Working Paper*. WP/99/73 (May 1999).
- Bolaky, Bineswaree & Freund, Caroline. “Trade, Regulations, an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55 (March 2004).
- Burki, Shahid Javed and Perry, Guillermo. eds, *Beyond the Washington Consensus : Institutions Matter*, Washington, DC : World Bank, 1998.

- Clague, C. and Reuser, E. eds. *The Emergence of Market Economies in Eastern Europe*. Cambridge : Blackwell Publishers, 1992.
- De Melo, M., Denizer C., Gelb, A. and Tenev S. "Circumstances and Choice :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866 (December, 1998).
- Dewatripont, M. and Roland, G. "Economic Reform and Dynamic Political Constrai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9, No. 4 (October, 1992).
- Dowling, Malcolm and Wignaraja, Ganeshan. "Central Asia's Economy : Mapping Future Prospects to 2015." *Silk Road Paper* (July, 2006).
- Esentugelov, A. "Kazakhstan : Problems and Prospects of Reform and Development." in Rumer, B. *Central Asia in Transition - Dilemma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M.E. Sharpe, 1996.
- Esentugelov, A. "Kazakhstan : Problems and Prospects of Reform and Development." in Rumer, B. *Central Asia in Transition - Dilemmas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 M.E. Sharpe, 1996.
- Fischer, S. "Ten Years of Transition :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IMF Staff Papers*, Vol. 48, No. 4 (2002).
- _____ and Sahay, R. "Transition Economies :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Initial Conditions." *Festschrift in Honor of Guillermo A. Calvo Conference*. April 14, 2004.
- Griffin, Keith. "Social policy in Kazakhstan during the economic tran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Vol. 26, No. 1/2/3 (1999).
- Havrylyshyn, O. *Divergent Paths in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

- Capitalism for All or Capitalism for the Few?* New York : IMF and Palgrave Macmillan, 2006.
- Havrylyshyn, O. and van Rooden, Ron. "Institutions Matter in Transition, But So Do Policie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5, No. 1 (March, 2003).
- Hawtrey, K. "Financial Market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Agenda*. Vol. 3, No. 2 (1996).
- Hoff, K. and Stiglitz, J. "After the big bang? Obstacles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of law in post-communist socie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3 (2004).
- IMF. "Republic of Kazakhstan : 200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Staff Report, IMF Country Report*, No. 03/210 (July, 2003), p. 11.
- Irnazarov, F. K. "Transition Strategies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since Independence : Paradoxes and Prospects." *Project on Emerging Markets in Central Asia*, February 2009. [http://www. centralasiaproject.de/index.php?option=com_docman& task=doc_details&gid=30&&Itemid=7](http://www.centralasiaproject.de/index.php?option=com_docman&task=doc_details&gid=30&&Itemid=7) (검색일 : 2009.3.20.)
- Kalyuzhnova, Y. Pemberton, J. and Mukhamediyev, B.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in Kazakhstan." in Ofer G. and Pomfret R. ed.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since 1991*. Cheltenham, U.K. : Edward Elgar, 2004.
- Klaus, V. "The Ten Commandments of a Systematic Reform Revisited." *IFC Fourth Annual Lecture*. Washington : IFC/World Bank, 1995.
- Marangos, J. "Was Shock Therapy Really a Shock?"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7, No. 4 (2003).
- Murrell, P. "How Far Has the Transition Progressed?" *Journal of*

- Economic Perspectives*. Vol. 10, No. 2 (1996).
- Ofer, G. and Pomfret, R., eds. *The Economic Prospects of the CIS - Sources of Long Term Growth since 1991*. Cheltenham, U.K. : Edward Elgar, 1991.
- Pomfret, R. *The Central Asian Economies Since Independenc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Popov, V. "Shock Therapy versus Gradualism : The End of the Debate (Explaining the Magnitude of Transformational Recessio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2, No. 1 (2000).
- Richard Pomfret, "Kazakhstan's Economy since Independence : Does the Oil Boom Offer a Second Ch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6 (September, 2005).
- Rodrik, D. *One Economics Many Recipes*.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Roland, G.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1 (2002).
- Roland, G. and Verdier, T. "Transition and the Output Fall." *Economics of Transition*. Vol. 7, No. 1 (1999).
- Sachs, J. and Warner, A.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no. 517*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1995.
- Sachs, J. and Woo, W. Thye. "Structural Factors in the Economic Reforms of China,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Economic Policy*. Vol. 9, No. 18 (April, 1994).
- Sala-i-Martin, Xavier & Subramanian, Arvind. "Addressing the Natural Resource Curse : An Illustration from Nigeria." *IMF Working Paper*. WP/03/139 (July, 2003).
- Spechler, Martin C. "The Economies of Central Asia : A Survey."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50, No. 1 (March, 2008).

Tornell, A. and Lane, P. "The voracity effec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9, No. 1 (March, 1999).

UNDP. *Kazakstan Human Development Report 1996*. Almaty : UNDP, 1996.

United Nations.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96-1997*. Geneva and New York : United Nations, 1997.

Abstract

Trans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azakhstan : Initial Conditions, Transition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Kim, Young-Jin

This paper mainly aims to analyse, based on theoretical framework of transition, Kazakhstan's initial conditions and transition strategy and to assess its influence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How can we estimate and characterize Kazakhstan's initial conditions inherited from the past and the meaning of its transition strategy, and their impact upon economic performance of the country. What is main causes of the Kazakhstan's rapid economic growth in 2000s, would its affluent resources including oil be a blessing for a curse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Kazakhstan has better initial conditions than the other countries of Central Asia, although worse than that of Central-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baltic states. The transition strategy, however, concentrating on pric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tate owned enterprises, was narrow in its focus and addressed the wrong issues.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the economic situation began to appear more promising, as new oil discoveries, alternative pipeline routes and soaring oil prices fuelled the oil boom. The oil revenues would have been beyond anybody's mind of a decade earlier, but it can be said to be early to judge whether will they be used to promot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with equity or will they enrich a self-perpetuating elite who can prevent any political or institutional reform. The major concerns for Kazakhstan's future are dependency on oil and main commodities prices, the lack of a proper institutional framework, defici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a shortage of investment in the social sector and endemic corruption. Another problem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to catch up with the outcome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can be only done with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state in the institution-building process.